

#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추상적 개념의 시각화 사례 연구

A Case Review On Visualization of Abstract Concept for Idea Making

김진희(Jin-Hee Kim)

백제예술대학 컴퓨터그래픽과 교수

1. 서언

2. 연구방법

3. 본문

- 3-1. 상징
- 3-2. 알레고리
- 3-3. 특정양식: 매너리즘 미술
- 3-4. 초현실적 구상
- 3-5. 형이상학적 논리의 왜곡
- 3-6. 상황적 설정

4. 결론

5. 참고문헌

(要約)

일반적으로 미술에서 어떠한 내용을 시각화하는 아이디어는 한 작품의 성공여부에 결정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 아이디어 발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화 작업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에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개개인의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개성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던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서양미술에서 추상적 개념을 시각화한 내용을 보이는 구상화 중 표현기법 상의 대략 몇 가지의 사례를 분류해보고 그 표현기법이 확연하게 설명이 가능한 경우의 작품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표현기법에 따라 상징, 알레고리, 특정양식, 초현실주의 구상기법, 형이상학적 논리의 왜곡, 그리고 상황적 설정으로 나누어 보고 각각의 기법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추상적 개념을 형성하고 전달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가 미흡한 응용예술 분야의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의 사례연구이다.

(Abstract)

Although in art an idea which visualizes a certain concept is generally such an essential part as it would be decisive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an art work in reality various difficulties are involved in idea making. Thus, directions for the idea making for visualization works are suggested in this paper. This paper classifies several cases of expression skills among non-abstracts showing the contents which visualize abstract concepts in western art after Renaissance when freedom of individual artistic expression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initiated. Also, this paper selects and introduces art works in which expression skills can be obviously explained. The expression skills are divided into symbolizing, allegory, specific pattern, non-abstract skills of surrealism, metaphysical distortion of logic and situation fixing, and specific examples on how the abstract concepts are formed and delivered are described. This is a case study done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help for the idea making in the applied art field which is lack of this kind of study.

## 1. 서언

미술에서는 대략적으로 사실적, 이상적, 상징적, 낭만적, 추상적, 또는 초현실적 등등의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사실적 또는 추상적 내용을 시각화시켜 보는 이에게 전달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서술적인 내용을 사실적인 표현기법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면 그 사실적 표현기법이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발전해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이던 간에 미술가에게 어떤 내용의 시각화는 항상 어려운 작업이지만 특별히 그림에 담고자하는 것이 추상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그것을 시각화시키는 것이 더욱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표현방법에 대하여 고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작품의 구상 단계에서 내용이나 개념의 시각화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예를 들어 순수 예술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시간에 따라 어떤 내용이 전개되도록 구상하여야 하는 애니메이션 예술과 같은 분야의 경우에는 단순히 테크닉에 의존한 시각화보다는 내용적인 면에 중점을 둔 시각화 작업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을 시각화시킬 수 있는지의 예의 접목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서양미술사를 토대로 한 순수회화 영역의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살펴계 되었고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추상적 내용을 시각화한 표현기법들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그림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 문화적, 시대적, 개인적 배경에 따라 분석하고 이해하는 현대의 도상학적 시도와는 구별되며 작품을 해석하는 시점에서보다는 작품을 구현하는 시점에서 응용 될 수 있는 기법들을 중심으로 분석·제시한다. 대상은 주로 미술가가 그림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추상적인 것일 경우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상한 표현기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징, 특정양식, 알레고리, 초 현실, 형이상학, 그리고 상황의 설정으로 나누어 내용의 구현 방법에 대한 구체적 실 예를 들어 설명하여 보았다. 각각의 접근방식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표현 기법이 두드러졌던 시기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샘플의 설정은 객관성을 갖도록 많이 알려진 회화 작품들 중에서 구체적 기법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가능한 경우를 발췌하여 제시해 보았다.

- 1) 상징기법- 사실적 대상으로 보이지만 특정적 개념이나 의미를 담은 상징물들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추상적 개념이나 내용을 상징적으로 전달 할 수 있다.
- 2) 알레고리- 사실적 대상으로 보이지만 특정적 개념이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의미들을 직접적 상징보다는 좀 더 은유적으로 상징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추상적 개념을 전달하는 일반적 상징기법과는 구별되는 표현 기법이다.
- 3) 특정양식- 어떤 특정적 양식이 추상적 개념을 전달하는 양상을 보이는 예로 매너리즘으로 불리워졌던 한 시대적 양식의 표현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4)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 구상화중 병치, 치환, 변환, 또는 전환 기법을 사용하여 현실상황과 멀리 떨어진 상황묘사로 추상적 개념을 전달하는 경우이다.
- 5) 형이상학적 논리- 형이상학적으로 구성된 논리나 논리의

왜곡이 추상적 개념을 전달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이다.

- 6) 상황적 설정- 특정적 상황의 연출로 추상적 개념을 전달 할 수 있다.

## 3. 본론

### 3-1. 상징

흰 깃발은 구조요청이나 항복, 인간의 해골은 죽음의 상징으로 차용될 수 있는 것같이 상징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매우 일반화되어 사용되는 개념이다. 동시에 흔히 쓰이는 미술의 표현 기법이기도 하여서 일반적 대상으로 보이지만 특정적 개념이나 의미를 담은 상징물들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추상적 개념이나 내용을 상징적으로 전달 할 수 있게 된다. 중세의 통일적 표현의 양상에서 벗어난 시대적 특성을 형성한 르네상스 시대의 서양미술에서는 예술적인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성이 태동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일부 미술가들의 그림에는 사실적 표현을 넘어서 시도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다. 15세기 네덜란드 회화에서는 물체의 사실적인 재질과 형태의 표현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러한 회화에서 사실적인 표현의 물체들은 상징적 기법과 함께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얀 반 아이크의 <아르놀피니 결혼식, 1437> (그림 1)은 직물, 나무, 금속, 유리, 헤어 등의 사실적 재질의 감쪽 같은 표현으로도 유명하지만 사물들의 상징적 묘사로 더 유명하다. 얼핏 보기에는 신랑과 임신한 신부가 그들의 신혼 방에서 경건히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방 뒤편에 걸려진 거울 속으로 신랑과 신부 앞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중 한 사람은 신랑의 친구였던 안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안이 이 식의 증인으로 참석하고 그 증거물로 그려진 그림일까? 그림의 세부사항을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이 그림이 단순한 혼인증서가 아님을



[그림 1]

알 수 있다. 출산의 신인 성 마가렛 상, 신혼부부의 열정이나 의식 또는 신이 함께 함의 상징으로 해석되는 촛불, 성모마리아의 상징으로 차용된 창턱의 과일이나 거울 옆의 수정, 부부간의 신의 상징인 개, 침대, 슬리퍼 두 짝, 임신한 신부, 그리고 인물들의 몸짓 등등의 그저 사실적 표현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상징적 의미로 가득하다. 혼인성사를 세속적인 모습으로 담은 이 그림은 예나 지금이나 중대한 인간 성사의 하나인 혼인의 범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혼인의 한 장면을 사실대로 묘사한 그림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작가 자신이 생각하는 혼인의 의미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작가가 인위적으로 상징물들을 차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그림은 또한 두 사람의 전신 초상이라는 점, 종교적 소재가 아닌 인간사를 표현의 중심에 둔 점, 그리고 숨겨지고 가장되어 하나의 주제로 통합된 표현 형태에서 그 당시로서는 매우 독창적인 것이었다. 그보다 조금 앞선 연대의 로베르 캥팽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메로드 제단화 <수태고지, 1425년경> (그림 2)는 성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다른 종교화와 마찬가지로 매우 흔하게 묘사 되어온 종교적 소재를 다른 서술적 목적의 종교화이지만 안 반 아이크의 아르놀피니 결혼식 못지 않게 상징적 의미의 사실적 세부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모두 3폭으로 구성되어 있고 왼쪽 폭에는 건물과 뜰을 배경으로 중앙 폭 쪽으로 문을 연 채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는 성직자로 추정되는 남녀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특히 이 그림의 전체적 접근 방식과도 일치되게 앞쪽의 남자는 지금 중앙의 폭에서 일어나는 성스러운 사건을 경건히 응시하며 사실로 받아들이는 듯 하다. 중앙의 큰 폭에는 잉태의 소식을 전하고자 찾아온 천사와 일상에 몰입하고 있고 평민에 가까워 보이는 마리아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사실적 세부 묘사로 보여주는 백합, 팥을 낸 채 매달린 주전자, 타월, 초, 벤치, 책 등등의 물체들은 처녀의 순결성과 그녀의 성스러운 책임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상징하고 있다. 오른쪽 폭에는 마리아의 미래의 남편인 목수 요셉이 중앙 폭과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가 만들고 있는 쥐뿔은 악마를 잡기 위해 예수가 세상의 덮에 처진 미끼가 되는 것에 대한 종교적인 전통의 상징으로 쓰여진 듯 하



[그림 2]

다. 중앙 폭에서 표현된 실내 공간에서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하늘 배경은 그림의 시점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표현으로 오른쪽 폭의 목공소 뒤편의 배경으로 설정된 도시 거리의

사실적인 표현과는 대조적으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다는 초현실적인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상징적 표현이다. 이와같은 모든 상징성들은 수태고지라는 추상적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제롬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 1505-10년경> (세부, 그림 3)은 2미터가 넘는 거대한 규모의 세 폭 제단화로써 앞서 설명한 네덜란드 화가 안 반 아이크나 로베르 캥팽과 같은 작가들의 상징주의가 좀 더 자유롭게 발전되어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접혀진 제단화의 바깥쪽 면에 그려진 천지창조에서는 창조의 셋째 날의 세계가 커다란 수정구슬 속에 들어 있고 펼쳐진 왼쪽에는 이브의 창조, 중앙에는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옥의 전경이 펼쳐져 있다. 지금도 해석이 가능한 몇몇의 상징적 요소를 제외하고도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 볼 수 있었을 법한 특정한 연상효과를 가진 상징물들로 가득하다. 풍경과 형상물들은 실제적인 것도 있고 전설적인 것도 있고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것도 있는데 얼핏 보기도 시각적 특질에서 초현실주의적 관련성을 쉽게 인지 할 수 있다.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에서와 같은 불안한 느낌의 메마른 풍경과 실제에서 변형되어 왜곡되어 보이는 물체들이 관찰되고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다른 성질의 두가지 물체들을 하나의 물체로 결합시킨 병치 기법을 거대한 귀와 칼의 결합 또는 나뭇가지와 사람 팔의 결합 물고기의 얼굴을 한 사람의 형상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어 보쉬의 그림은 이러한 기법들의 기원이 된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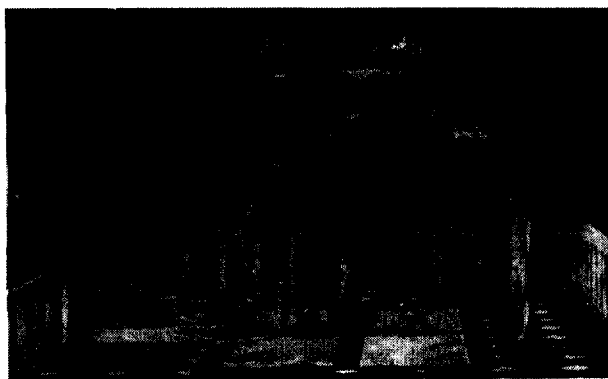
### 3-2. 알레고리

아놀로 브론지노의 세련된 회화 작품 <비너스, 큐피드, 에리 석음과 시간, 1545년경> (그림 4)는 매너리즘에 속하는 회화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알레고리화로 더 유명한 작품이다. 알레고리란 우의 또는 풍유를 뜻하는 그리스어 '알레고리아'에서 유래된 말로 서술적 내용의 추상적 개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은유적 상징으로 표현하는 문학에서도 쓰여지는 표현기법이다. 알레고리는 사실적 대상으로 표현하지만 특정적 개념이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의미들을 직접적 상징보다는 좀 더 은유적으로 상징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추상적 개념을 전달하는 일반적 상징기법과는 구별되는 표현 기법이



[그림 4]

다. 브론지노의 회화에서 에로틱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인은 전통적으로 미술가들이 즐겨 그려왔던 소재인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신화로 유래된 황금사과로 추정할 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너스임이 분명하나 화살로 추정 가능한 아들 큐피드와 에로틱한 포즈를 취하고 있고 더욱이 이상한 것은 그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혀 에로틱하지 않고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그림 속에 숨겨진 알레고리는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옆에서 지금까지 한 다발의 장미를 던지려 하는 소년이 상징하는 어리석음에 의한 쾌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오른쪽 바닥에 놓여진 가면이 상징하는 거짓됨과 어리석음의 소년 뒤에 숨어 아름다운 얼굴이지만 야수의 몸을 가진 인물이 상징하는 기만과 무대로 걸쳐 드리워진 천이 상징하는 시간의 장막이 걸히면 그림의 왼쪽위 시간의 장막 뒤의 인물이 상징하는 운명이 다가오는 것이라는 도덕적 교훈의 내용을 담은 알레고리가 숨겨져 있다. 사랑의 교훈에 관한 추상적이며 서술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 상징물을 통한 은유적 기법으로 표현된 것이다. 귀족들이 모여 이 그림을 대상으로 한 사치스러운 퀴즈를 즐겼을지 모를 향락적 귀족 문화의 그 시절 사회상이 반영된 그림이



[그림 5]

기도하며 과장되고 복잡한 요소들 속에서 안정된 구성을 실현해주는 과장되어 보이는 'L'자형의 포즈와 대리석과도 같이 차가워 보이는 비현실적 피부의 표현 그리고 비현실적 공간의 설정 등 매너리즘의 전형적 양상들을 또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하다. 지오반니 벨리니의 <신성한 알레고리, 1490년경> (그림 5)는 '신의 강생'에 대한 알레고리화로 여겨진다. 앞의 테라스의 영역은 신에게 구원 받은 세계에 속하고 속세의 기억을 정화시켜 준다는 레테강 건너편은 인간세계로 이교도를 상징하는 듯 한 반인반수 모습의 인물이 보인다. 테라스 안에는 인류의 원죄를 상징하는 황금사과를 든 흰 셔츠의 어린 예수의 모습과 오른쪽의 욕과 성 세바스찬의 모습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나무 밑에는 성모가 정의의 신과 자비의 신 사이에서 판정을 내리는 듯하고 테라스 난파 너머로 예수의 수난을 예언한 시몬이 검은 검은을 들고 있고 그 옆은 동정녀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모습이 보인다. 정확한 원근법과 수정 같은 맑은 빛의 풍경 속의 서정적이고 관조적이며 조화로운 모습의 인물들은 신성한 질서에 대한 강한 믿음이 서려 있는 듯하다. 원죄를 지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신의 강생에 대한 추상적인 내용은 은유적 상징물들로 시각화 된 것이다. 멜랑콜리한 사람이란 진지하고 지적인 성향의 사람을 지칭 하였는데 알브레히트 뒤러의 판화 <멜랑콜리아 I, 1514> (그림 6)에서는 예술가에게 지워진 창작적 고뇌가 날개를 달고 있으나 날지 못하고 우울해 하는 모습의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마음속의 순수한 아이디어를 총체적 시각으로 나타내려는 천재의 고뇌를 그린 뒤러 자신의 자화상일 수도 있고 행동할 능력과 신적 영감이 부족한 지식의 인격화일 수도 있고 인간의 나약함으로 패배한 신의 열망의 표현 일 수도 있다. 예술과 과학 그리고 창작에 관련된 상징적 도구들이 주변에 나열되어 있고 지적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는 토성과 혜성이 하늘에 빛나고 있으며 또한 토성은 모든 학문의 토대인 수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6]

### 3-3. 특정양식: 매너리즘 미술

매너리즘은 르네상스 전성기로부터 바로크시대 초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인 대략 1520년에서 1600년 사이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회화나 조각 또는 건축에서 나타난 특정적 회화의 양상을 말한다. 이탈리아어, '마니에라(maniera)'는 대략 '양식'을 의미하는 말로 그 번역어인 매너리즘은 '유행을 따른 그림' 또는 '양식화'를 의미하고 주로 부자연스럽고 왜곡된 회화 표현의 양상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여왔다. 매너리즘의 특징적인 경향은 변형된 듯이 보이는 형태, 부자연스러운 제스처나 얼굴 표정, 비현실적 공간의 정의, 크기의 비현실적 설정, 비현실적 색채의 대비 등의 요소들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특정적 양식이 추상적 개념을 전달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매너리즘의 양식은 초현실적 표현기법과 유사하지만 궁극적 이미지가 전달하려는 내용에 있어서 초현실주의는 하나의 특정적 사조로 개념화 된 반면 매너리즘은 특정적 개념으로 충분히 완속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술사상 초현실주의를 비롯한 많은 사조에 영향력이 있었던 미술의 경향임에는 틀림이 없다. 포 카루치 다 폰토르모의 <이집트에서의 요셉, 1515년경> (그림 7)에서 보여지는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은 계단과 사람들보다 더 살아 있는 듯한 표현의 조각, 그리고 비현실적 색채의 표현과 변칙적인 원근법과 비례 등등의



[그림 7]



[그림 8]

매너리즘의 대표적 양상들이 관찰되고 있다. 파르미지아니노의 <목이 긴 성모, 1535년경> (그림 8) 또한 꼭대기가 연결되지 않은 기둥, 성모가 앉아 있는 포즈의 비현실적 설정, 아기예수의 비현실적 크기 비례의 설정, 오른쪽의 살아 있는 듯이 보이는 조각이지만 왼쪽의 인물들과 비교해 비현실적으로 작아 보이는 크기 등등의 매너리즘의 왜곡된 양상들이 두드러지며 현실을 넘어선 추상적 표현으로 시각화되어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 크기의 관계 설정은 현대의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앞으로 살펴볼 것이다. 프란체스코 데 로시 살비아티는 팔라조 사게티 궁 내부의 프레스코화인 <다윗에게로 가는 밧세바, 1552- 54년경> (그림 9)에서 비현실적으로 설정된 구불구불한 가공의 계단을 따라 다윗에게 가고있는 밧세바의 모습을 환상적으로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밧세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중복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오반니 디 파올로의 <황야로 들어가는 성 요한, 1450년경> (그림 10)에서 마을의 문에서 등장하여 언덕의 중간까지 올라가는 서술적 내용의 사실적인 기술로 사용된 중복된 모습과는 다르게, 설정된 모습들이 서술적이라기보다는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어 추상적 이미지가 연출되는 경우로 앞으로 소개 될 현대 작가 모리츠 에셔의 작품과도 일맥 상통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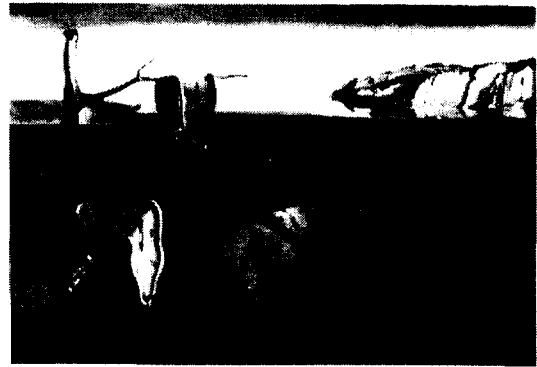
△ [그림 10]

◁ [그림 9]

### 3-4. 초현실적 구상

20세기초의 아방가르트는 이제 양식이나 형식의 제약에서 벗어난 창의적 표현의 추구보다는 예술을 통해 좀 더 인간의 본질 속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엿보이고 세계 2차대전 후 다다에서 보여진 파괴의 양상은 상상력과 무의식으로 재구성된 새로운 형상의 예술분야인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초현실주의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구체적 대상보다는 무의식에서 탄생된 형태와 이미지를 표현의 중심으로 삼는 추상적 초현실주의와 자연에서 발견되는 구체적 사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실 상황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와 상황으로 전개시킨 구상적 초현실주의가 있다. 구상적 초현실주의는 병치 즉, 상이한 상황의

둘 이상의 대상을 같은 장소에 동시에 설치한다거나 어떤 사물의 크기나 성질 또는 형태를 변화 또는 변형시키거나 어떠한 대상의 일부를 다른 것으로 치환시키거나 상반되는 상황으로 이리저리 바뀌서 전환시키는 등등의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앞서 설명한 매너리즘의 전통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그 대표적 예가 마그리트 그리고 달리와 같은 구상적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작품이다. 르네 마그리트의 <관통된 시간, 1939> (그림 11)은 상이한 상황의 둘 이상의 대상을 같은 장소에 동시에 설치한 병치기법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실외의 철로 길에서 달려야 할 기관차는 벽난로를 뚫고 전혀 상이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적막이 흐르는 듯한 실내 방안으로 질주해 오고 있다. 두 상이한 대상간에 일종의 상관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는 기관차에서 뿜어내고 있는 연기는 불을 지필 벽난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어떤 사물의 크기를 변화시킨 대표적 예로는 역시 르네 마그리트의 <개인적 가치, 1951> (그림 12)라는 작품에서의 사물의 상대적 크기들의 상관관계적인 변형이다. 어차피 가상 공간에서의 사물의 크기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집의 크기를 2cm×2cm로 그려 놓았다면 상대적으로 그 앞에 세워진 차의 크기는 2cm×2cm보다는 훨씬 작은 크기여야 할 것이다. 아마도 그림의 제목으로 설정된 '개인적 가치'란 것은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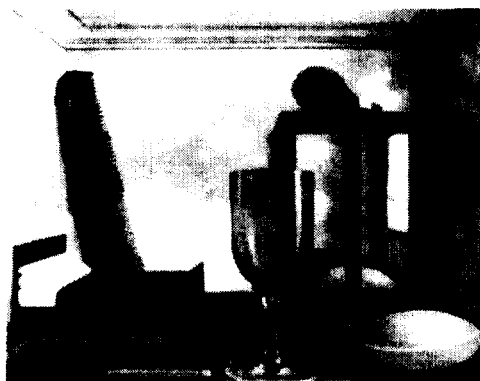


[그림 14]



[그림 11]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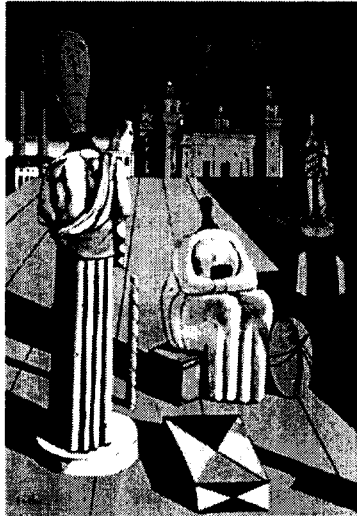


[그림 12]

그 방안에 비현실적으로 변형된 관계상의 크기로 놓여진 물체 들만큼이나 주관적인 가치가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어떤 사물의 성질변화와 그에 따른 형태의 변형이 성공적인 표현의 예로 살바도르 달리의 유명한 <기억의 지속, 1931> (그림 13) 이라는 작품을 꼽을 수 있다. 앞서 설명했던 보쉬의 쾌락의 정원에서의 배경과도 비슷한 황폐한 느낌의 비현실적 풍경이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 앞으로 더위에 녹아 내린 듯한 성질의 변환을 암시하는 변형된 형태의 시계들이 관으로 보이는 물체 위에 늘어 붙여져 놓여있고 관에서 자라난 듯한 죽은 나무 위에 축 늘어져 걸터져 있고 또 죽어 말라비틀어진 형태가 죽은 말임을 묵묵히 암시하고 있는 듯 말안장과 같은 모양으로 얹혀져 있다. 죽은 생명체 위로 물려든 듯한 시계 위의 파리 떼 또한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는 기억 속에서의 멈추어지고 죽어 말라비틀어지고 녹아 내린 듯한 생명력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르네 마그리트의 <강간, 1948> (그림 14)이란 작품에서는 여자의 얼굴 안 생김새가 여자의 몸체 모양으로 치환되어 있다. 제목이 강간임으로 판단해보면 그림은 성적인 볼거리나 흥미 거리 또는 웃음거리로 제시되었다기보다는 강간이란 행위 자체가 여자를 인격체로 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견해를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마그리트의 <미스테리의 집, 1892> (그림 15)에서는 밤과 낮의 풍경이 서로 치환되어 추상적 개념이 전달되고 있다.

### 3-5. 형이상학적 논리의 왜곡

상상력과 무의식으로 재구성된 새로운 형상의 예술분야는 초현실주의 외에도 좀 더 개인적인 미학과 새로운 세계의 구현을 보여주는 많은 작품들이 선보이게 된다. 20세기에 활동한 세계적 역량의 이탈리아 미술가, 조르지오 데 키리코는 현실



[그림 16]

적 사물에 근거하는 구상적 이미지를 그렸지만 그 이미지는 일상세계가 아닌 '초현실적'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적막한 배경 속에 고립된 듯 느껴지는 대상들은 마치 꿈속의 모습 같기도 하고 시와 같은 가상적 문학세계가 형상화 된 듯 낯설기만 하다. 배경의 적막함은 도시적 인공물로 포장된 듯 보이는 길과 건물에서 더욱 강조되고 자세한 모습을 알아 볼 수 없는 긴 형상의 사람과 비논리적으로 구현되었지만 오히려 강조되고 있는 대상물들의 그림자는 그 강렬함에서 무서운 느낌마저 전해진다. 앞서 설명한 요소들 외에도 그림들에서 이러한 적막하고 불안한 정서적 반향성과 상관성을 가지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는데 그 중 하나의 구체적 예로 <사악한 뮤즈, 1917> (그림 16)에서 사용된 왜곡된 원근법을 들 수 있다. 원근법이란 이차원적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삼차원의 공간을 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법으로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물을 공간 속에 정의하는 모든 선들은 우리의 눈 높이인 수평선까지 연결되고 이러한 선들을 더 연장시켜 보면 결국은 소실점이라 불리는 하나의 점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키리코의 '사악한 뮤즈'에서는 일부러 틀린 원근법을 적용하여 소실점이 심하게 불일치하고 있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공간감으로 이를 매우 강조하고 있어 불안하고 색다른 느낌의 비현실적 감각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모리츠 에셔의 <정물과 거리, 1937> (그림 17)에서 사용된 정밀한 원근법은 비현실적 논리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다. 비현실적으로 구성된 도대체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지 모르는 상호침투적인 논리적 호호성이 이 그림의 가장 핵심적 구성의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듯 형이상학적 논리의 왜곡이 추상적 개념을 전달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7]

### 3-6. 상황적 설정

무드 페인팅으로 유명한 지오르지오네의 <폭풍우, 1505> (그림 18)은 그 추상적 개념의 해석이 매우 난해하지만 기묘한 상황의 설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바로 전을 암시하는 풍경화가 펼쳐져 있으나 꿈인 듯 생시인 듯 부드러우며 신비스러운 기운이 가득하고 전경의 오른쪽에는 아기를 안은 어머니가 벌거벗은 채 자연에 노출되어 있고 왼쪽에는 옷을 입은 평복의 병사가 이들을 지키고 있는 듯 장대를



[그림 18]

들고 서있다. 이와 같은 이해하기 힘든 기묘한 상황의 설정은 X-레이 투시 검사로 확인한 바 전경의 인물들이 다른 모습과 사람으로 수없이 수정된 것으로 추정할 때 특정한 서술적 내용을 암시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의 설정 자체가 갖는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서술적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된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또는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명언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모태인 자연과 인간의 멜 레야 멜 수 없는 숙명적 관계성을 잘 암시한 말이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숭고한 관계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회화로 가장 잘 표현한 화가는 아마 장-프랑수아 밀레일



것이다. 황혼녘에 대자연의 들판에 서면 누구든지 자연의 위대함에 경건한 마음이 될 것이다. 밀레의 <만종>에서는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의 부부는 황금빛 태양에 휩쓸려 그들의 모습은 자연의 일부처럼 전혀 두드러지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이삭줍는 사람들, 1857> (그림 19)과 같은 경우에도 중력과 같은 자연적 법칙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사람의 형태로 만들고 사실적 표현과는 차이를 보이는 그림의 아래 부분으로 갈수록 어두어지는 명암 효과를 주는 등 세심하게 조정한 듯 보이며 이 시각적 요소들은 주제와 너무도 잘 부합되어 우리에게 자연과 인간의 숭고한 결합성이라는 추상적 주제를 전달해준다. 독일의 낭만주의 풍경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바닷가의 수도승, 1809> (그림 20)에서는 차갑고 광활해 보이는 자연의 설정과 그 앞에 작고 소외되어 표현된 인간의 설정간의 관계가 대자연 앞에서의 인



[그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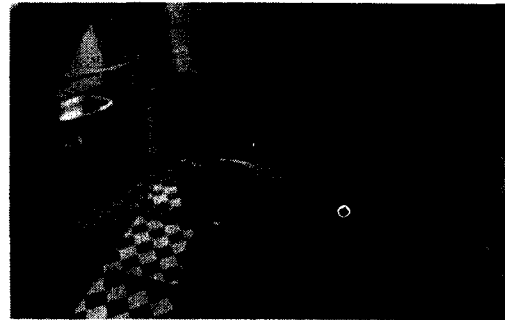
[그림 20]

간의 나약함과 인간사의 덧없음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작품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조르지오 데 키리코의 <예언자의 보답, 1913> (그림 21)은 긴장되고 미스터리한 우울한 분위기의 형이상학적 세계가 시계, 멀리 기차, 빈 하늘, 뒤틀린 시점, 아치형 아케이드로 꿰겨진 빈 광장 그리고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미스터리하게 살아있는 조각의 모습의 섬뜩한 꿈의 세계로 펼쳐진다. 이러한 꿈으로 대치된 리얼리티의 상황 설정은 형이상학의 추상적 세계를 시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소중함'이란 추상적 개념을 시각화한다면 인간의 소중함을 직설적으로 느끼게 하는 가족의 따뜻한 인간적 교류의 장면과 같은 상황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날이 산업화되고 핵가족화 되며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며 인간은 소외



[그림 21]

당하는 현대의 사회상을 보여준다면 역설적이지만 조금 더 강하게 인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리앙-유안 왕의 <The Sitter/애보는 사람(기계), 1998> (그림 22)는 2분 50초 길이의 삼차원 컴퓨터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폐쇄된 듯 보이고 미래의 모습인 듯 느껴지는 삭막한 분위기의 공간은 지금 보는 이가 방안을 모니터하고 있는 방 입구의 천장에 매달린 TV모니터와 같은 높은 시점에서 방안을 내려다보며 기계가 모니터링 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 방 안쪽에는 왼쪽의 세면대와 녹이 슬어 보이는 파이프 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덩그러니 아기의 요람만이 자리하고 있다. 적막한 공간 안에 이윽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퍼지고 그때 모니터링하고 있던 기계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우유를 주고 요람을 흔드는 등의 아기 보는 역할을 수행하고 아기의 울음소리는 잔혹한 현실로 느껴지며 우리의 귀를 찌르듯 계속되는 장면이 펼쳐진다. 기계가 대신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인간의 역할을 기계가 대신하는 것으로 상황설정 함으로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전달하는 작품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상황설정이 현실감을 주어 더욱 강조되도록 모든 물체는 매우 사실적 기법으로 모델링 되어있다.



[그림 22]

#### 4. 결론

이 논문에서 본 저자는 임의대로 그림의 핵심적인 내용표현방법을 분석하여 각각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림은 사실 여러 기법들이 복합적으로 쓰여지며 보는 이의 분석에 따라 그것의 견해 또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각자의 생각에 대한 논의 과정이 각자 자신의 작품의 개념형성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상적 개념을 시각화한 기법으로 사실적 표현을 넘어선 상징성이 차용된 예와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선 알레고리가 사용된 경우 그리고 매너리즘 미술의 특이한 표현기법 등을 고찰하였고 초현실주의 구상화자들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병치, 변환, 치환, 전환의 기법으로 전달되는 추상적 개념의 예와 논리의 왜곡으로 강조되거나 전달된 추상적 개념의 예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특정적으로 설정된 상황이 추상적 개념을 전달할 수 있음도 고찰하였다. 구상화만을 대상으로 삼았고 대체적으로 추상적 개념의 시각화 기법이 미술사적 흐름의 초현실주의와 내용상 많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기법들은 또 구현하고자하는 분야의 미디어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적용

양식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본적인 내용상의 적용은 일맥상통 할 것이다. 그림을 이해하는 작업도 전문가들에게조차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그림을 통해 순수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창작미술가의 작업은 천재에게 있어서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닌 듯 보이지만 이러한 적용의 예의 제시가 지금 시각 예술을 시작하는 단계의 학생들의 작품구상 아이디어 발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사진, 비디오, 그리고 삼차원 애니메이션과 같은 순수예술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응용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이 논문을 읽는 계기가 미술사를 좀 더 가까이하는 계기로 발전되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 논고를 마친다.

## 5. 참고문헌

- 데이비드 파이퍼/김영나 감수/손효주, 유시주, 양건열역, 미술사의 이해, 시공사, 54~55, 82~85, 298~307, 360, 372~375, 630~641, 제1~3권, 1995
- Horst de la Croix, Richard G. Tansey, Diane Kirkpatrick, Gardner's Art Through the Ages II, HBJ, 665~672, 694~721, 968~987
- David Britt, Mordern Art impressionism to post-modernism, A Bulfinch Press Book, 202~251, 1989
- 수잔 우드포드, 이영철 역, 명화 감상, 예경산업사, 13~20, 41~44, 108~118, 1991
- 로자 마리아 레츠, 김창규 역, 르네상스의 미술, 도서출판 예경, 35~51, 81~95, 1991
- Digital Salon, LEONARDO, The MIT Press, Vol. 31 #5, 1998
- 박신정, 데 페이지망 기법의 표현방법 연구, 디자인학 연구, 제12권, 제1호, 109-118, 1999
- Magritte, Jacques Meuris, Benedikt Taschen, Verlag GmbH, 1994
- 박래경, 서양미술전집 23/에른스트/달리/미로, 한국일보사, 86~137, 1983
- 임영방, 서양미술전집 3/뒤러/브뤼겔, 한국일보사, 86~143, 1983
- 김세중외 9인, 현대세계미술대전집 10, 금성출판사, 88~100, 1981
- 김세중외 9인, 현대세계미술대전집 14, 금성출판사, 374~396, 1981